

고학력자들이 사회에 끼친 악영향은 무엇이 있을까

202110815 윤준희

- ① 참고한 문헌들이 제법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문에 인용한 부분에 대한 출처(각주)를 밝히고 있지 않음. 각주를 꼼꼼하게 정리할 것.
- ② 에세이의 기본 형식을 따르려는 시도는 있으나, 본론에서 다루는 내용을 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음.
- ③ 참고한 문헌들에서 제시하는 핵심 논증 등을 요약 및 분석하고, 그것들을 활용하여 더 나아간 논의를 해야 함.
- ④ 사실적 정보들이 제시되었으며, 그것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의미나 결론이 무엇인지 밝혀져야 하고, 그것에 대한 필자의 생각이 드러나야 함. 이와 같은 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필자의 논증이 있는 에세이를 작성했다고 볼 수 있다.
- ⑤ 교재의 5장을 참고하여 글의 전체적인 구성을 재조정할 것. 본론 또한 다루고 있는 내용에 따라 세 부적인 장을 구분할 것.
- ⑥ 한글로 작성할 경우 양쪽 정렬로 정리할 것.

1. 서론

오늘날 거의 모든 사람들은 대학교에 진학한다. '2021 청소년 통계'에서도 볼 수 있듯이 고등학교 졸업생 10명 중 7명(72.5%)은 대학에 진학했다.¹ 대학에 진학하는 사람들 중 대부분은 서울권의 대학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는 상황이다. 치열한 경쟁을 통해 대학에 진학한 사람들 중에서는 관리직을 원하는 사람들도 있고 지도자가 되고 싶은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 사람들 중에서 자신이 목표했던 바를 이룬 사람들은 그 위치에서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¹ 출처를 분명히 밝힐 것.

이번에는 악영향 중 하나인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말해보겠다.

2. 본론

그렇다면 화이트칼라 범죄란 무엇일까?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서 알아보기 전에 먼저 2019 년과 2020 년 국내에서 발생하여 이슈가 되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말하겠다. 2019 년과 2020 년에 국내에서 이슈화된 사건들 중 다수는 살인과 강간, 강도 노상 같은 강력범죄가 아니라 자본시장법과 전자금융거래법 등의 범죄들이었다. 종래 범죄는 빈곤이나 정신장애 등 인생의 낙오자가 행하는 특유의 현상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오늘날 이런 견해들은 뒤바뀌게 되었다. 미국의 범죄학자 중에 한명인 E.H.서덜랜드는 경제적으로 빈곤하고 문화적으로 결핍된 사람들의 범죄에만 주로 관심을 갖던 범죄학 분야에 기업이나 정부에 의한 범죄, 소위 '상층 계층'의 범죄를 포함시켰고, 빈곤이나 빈곤과 관련된 사회적, 개인적 병리현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범죄가 있다는 것을 밝힘으로써 범죄의 원인이 빈곤과 관련없다는 문제를 제기하였다. 따라서 그는 사회의 지도적 지위에 있는 화이트칼라에 속하는 자가 직무행위와 관련하여 사리사욕 때문에 반사회적 행위를 하는 현상이 있음을 지적했고 범죄관을 수정할 것을 주장하였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그의 저서 'white collar crime' 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이트칼라에 속하는 자가 행하는 반사회적 행위들을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가지고 존경을 받는 자가 자신의 직업수행과정에서 범한 범죄, 즉 사회의 각 방면에서 관리적, 지도적 입장에 있는 자가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직무과정에서 범하는 범죄행위이다.** 우리나라에서 주로 기업범죄, 회사범죄라는 표현이 일반적인데 이런 화이트칼라 범죄는 주로 직장내 사적인 영역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그 이유는 범행의 흔적을 잘 은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합법적인 활동으로 가장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런 범죄들은 다른 일반적인 전통 범죄와는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크게 범행의 복잡성, 책임의 분산, 피해의 분산, 관대한 처벌로 볼 수가 있는데 첫번째로 범행의 복잡성에 대해 알아보겠다. 화이트칼라 범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우선 범행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과학이나 기술, 금융, 회계, 법률 등 직업상의 전문지식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고 때로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조직 체계나 경로 등을 활용하기도 해야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범죄의 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규모나 기간,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두 번째로는 책임의 분산이다. 많은 화이트칼라 범죄들

은 고도로 조직화되거나 책임의 정도를 달리하는 상당수의 공범들이 연루되어 있다. 조직내에서 책임과 권한의 위임이 일상화되다 보니 어떤 범죄에 대해 누가 법률적으로 또는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는가는 고사하고 누가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 당사자인지를 가리는 일조차 수월하지가 않다. 세 번째로는 피해의 분산이다 화이트칼라의 대표적인 특징인데 뚜렷한 직접 피해자가 없거나 피해가 분산되어 피해자 각각이 체감하는 손실의 정도가 그리 크지 않다는 점이다. 화이트 칼라 범죄는 그 피해자가 기업 등 추상적인 법인이거나 개별적으로는 사소한 피해만을 입은 다수의 사람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 네 번째로는 관대한 처벌이다. 화이트칼라 범죄의 경우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는 사례보다는 집행유예나 소액의 벌금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훨씬 많다.²

표 1. 전체 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연간 발생건수 (단위: 건)

년도	전체	강력	폭력	재산	교통
15*	2,020,725	35,139	248,707	622,126	597,473
16*	2,003,416	32,919	251,814	572,153	598,587
17*	1,817,860	35,954	238,163	540,514	500,939
18*	1,728,795	35,274	233,313	576,939	427,672
19*	1,757,846	35,046	232,114	627,557	404,962

출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Vol.12, 대검찰청, 2019

표 2. 재산범죄의 연간 발생 건수 (단위: 건)

구분	합계	절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15*	622,126	246,424	4,263	257,620	48,795	5,843	59,181
16*	572,153	202,936	2,072	250,084	52,025	5,754	59,202
17*	540,514	183,960	1,928	240,864	52,250	5,125	56,387
18*	576,939	177,861	954	278,380	57,093	5,666	56,985
19*	627,558	188,091	863	313,524	60,718	5,901	58,461

출처: 분기별 범죄동향 리포트 Vol.12, 대검찰청, 2019

2015년부터 2019년도까지 일어났었던 전체 범죄 및 주요 범죄군의 연간 발생건수를 보면 18년도까지는 계속 감소하였고 2019년도에는 조금 증가한 175만번인

² 출처를 분명히 밝힐 것

것을 볼 수 있다. 주요 범죄군의 증감률을 살펴보면 강력범죄, 폭력범죄는 2019년도에 전년도 대비 약간 감소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지만, 그러나 재산범죄 발생 건수의 경우 2017년도까지는 감소세를 보여주다가 2018년도부터 다시 많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재산 범죄의 발생건수는 다른 범죄들보다 압도적으로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재산범죄의 연간 발생 건수를 범죄군 별로 정리한 자료를 보면 사기, 횡령, 배임의 경우에는 2017년도 이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반면에 절도, 장물, 손괴의 경우에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처럼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하는 사기, 횡령, 배임 등의 범죄 회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회수의 증가 폭이 계속해서 커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렇다면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지른 자들의 처벌 수준은 어떨까? 처벌 수준을 알아보기 전에 양형기준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자면 양형기준제는 현행 형법은 제 51조에 양형의 조건을, 제 53조에 작량감경 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 양형의 판단은 전적으로 법관의 재량판단에 맡겨져 왔다. 2003년 10월 출범한 사법개혁위원회는 이러한 문제 인식하에 형사사법제도 개선의 한 분야로 양형제도를 선정하고 그 개선 과제로 양형자료조사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충실한 양형심리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2009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양형기준제를 시행하기 전인 2000년~2007년에선 법원에서 유죄판결 선고를 받은 252명의 기업인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기업인 중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25%에 불과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2009년에 양형기준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에도 집행유예 비중이 56~62%로 정도로 현재까지도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볼 정도로 처벌 수준이 낮다고 볼 수 있다.

3. 결론

양형위원회에 나오는 다른 강력범죄들의 형량들을 살펴보면 보통 다른 범죄들의 형량은 4~5년 정도로 보통 2년을 넘는다. 이에 비해 화이트칼라 범죄에 속하는 범죄들은 기본 형량이 다른 범죄들보다 압도적으로 적다. 화이트칼라 범죄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고 심지어는 강력범죄도 일어나는 수준으로 이제는 강력범

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을 정도지만 다른 강력범죄들보다 형량이 매우 적다.
그렇기 때문에 화이트칼라 범죄도 강력범죄로 보고 화이트칼라 범죄를 저질렀을 때에 대한 처벌이 강력해져야 한다.

참고 문헌

논문

화이트칼라 범죄의 심각성 및 양형기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 이장욱, 이윤호(2015)

재정적 압박과 전략정보 유무가 화이트칼라 범죄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 홍동규, 조은경(2021)

화이트칼라 범죄 양형분석 법원의 양형여기준 준수 여부를 중심으로 - 홍대운, 강정민 (2013)

양형기준제 시행의 문제점과 양형자료 조사제도 도입을 위한 제언 - 천진호 (2009)

사이트

[양형위원회 \(scourt.go.kr\)](http://scourt.go.kr)